

동상





마동석 아저씨처럼 건강해지는 우리 동네 '양천 도시 농업공원'



권서우 | 서울 지향초등학교 2학년

우리 동네에는 꼭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 나도 처음 가본 곳인데, 이름은 '양천 도시 농업공원'이다. 텃밭을 신청하고 당첨이 되면 일 년 동안 우리 밭이 되는 '신정텃밭농장'이라는 게 있는데 친구 집이 농장을 갖게 되어 따라가 보았다. 내 친구동생은 유모차를 타고 나는 키포드를 타고 출발했다. 처음 출발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걷다보니깐 조금 멀게 느껴졌다. 다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엄마가 곧 도착한다고 조금만 힘을 내라고 하셨다. 다 도착한 줄 알았는데 엄청 높은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다. 키포드를 엄마한테 맡기고 오르막길을 올라갔더니 예쁜 튜립이랑 여러 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있었다. 친구네 농장은 D단지여서 한참을 더 올라갔더니 땀이 뻘뻘 났다. 도착한 텃밭에는 친구 아빠 성함이 써진 팻말이 있었다. 친구네 할머니가 씨앗을 뿌려두셔서 우리는 물을 주기로 했다. 친구랑 번갈아가면서 물뿌리개에 물을 담아왔는데 너무 무거워서

물을 조금씩 흘렸다. 텃밭에는 감자, 고추, 상추, 가지, 방울토마토가 심어져 있었다. 밭에 포크가 지나간 것처럼 땅이 푹 파여 있었다. 밭모양이 꼭 한 줄 서기를 한 우리 반 같았다. 햇빛 때문에 등에 땀이 줄줄 흘렀다. 친구 동생이 벌레를 보고 울어서 내가 예쁜 무당벌레를 보여주었다. 무당벌레가 여러 마리 있었는데 색깔이랑 크기가 다 달랐다. 다음에 또 물을 주기로 하고 이제 내려가기로 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가깝게 느껴졌다. 한 달이 지나서 다시 농장에 가보았더니 고추랑 방울토마토가 많이 달려있어서 신기했다. 이번에는 물을 조금만 주고 앉아서 상추를 따다. 싱싱한 상추를 따는 건 재미있었는데 쪼그리고 앉아있었더니 다리가 저렸다.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서 이렇게 다리가 아프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가져온 상추를 엄마가 깨끗이 씻어주셔서 점심으로 먹기로 했다.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햄을 구워주신다고 했다. 상추에 쌈장을 넣고 햄을 넣어서 한입에 쏙~ 넣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기절할 뻔했다. 나는 그날 상추를 처음 먹어본 건데 다음에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이 놀러오면 ‘양천도시 농업공원’에 초대하고 싶다. 그러면 텃밭에 물도 주고 싱싱한 상추도 따고 무당벌레도 잡으면서 건강해질 것이다. 내년에는 우리 집도 우리 가족의 텃밭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